

## 2011학년도 신입학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 입니다.
- 답안지는 1장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십시오.  
(연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 답안지 정정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십시오.

[문제1] 제시문 [가]에서 밑줄 친 질문에 대해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답하시오.(300±50자, 30점)

[가] 오우삼이 할리우드에서 감독한 영화 <페이스 오프(Face Off)>는 테러리스트 케스터(니콜라스 케이지)와 FBI 요원 아처(존 트라볼타) 간의 대결을 다루고 있다. 임무 때문에 아처는 체포 도중 의식을 잃은 케스터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 수술을 감행한다.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특징마저도 그대로 복사해 옮기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수술을 마친 아처, 즉 케스터가 된 아처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얼굴이 거울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모습이다. 즉, 육체는 케스터지만 의식은 아처인 것이다. 과연 그는 아처인가, 케스터인가?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찾은 케스터도 의사를 납치해 아처의 얼굴 가족을 이식받아 아처 행세를 한다. 이제 아처가 된 케스터는 아처의 집에 가서 가장 역할을 하고, 케스터가 된 아처는 케스터의 친구와 애인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지낸다.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은 약간 성격이 변한 것 같지만 오히려 좋아졌다며 반기기까지 한다.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 볼수록 ‘나는 누구인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영화의 종반부에 케스터와 아처가 대결하는 장면이 있다. 양면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설전을 나누던 아처와 케스터는 거울 너머에 있는 적에게 총을 겨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얼굴은 당연히 자기 것이지만, 얼굴이 뒤바뀐 탓에 그것은 적의 모습이기도 하다. 거울 속 자기 모습에서 적을 발견하자 둘은 동시에 총을 쏜다. 얼굴은 적의 얼굴이지만, 사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해 총을 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총을 쏜 것인가, 적에게 쏜 것인가? 나를 규정하는 것은 육체인가, 의식인가?

[나] 몸은 변해도 의식은 변하지 않는 어떤 항구적인 속성, 의식의 이러한 특성을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이라고 부른다. 소년 소크라테스와 노년 소크라테스를 똑같은 소크라테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 때문에 키도 몸무게도 얼굴도 체형도 바뀌었고, 생각도 태도도 가치관도 신념도 모두 바뀌었는데도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소크라테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인물로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그의 신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옷처럼 걸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정 인물이 지니고 있는 의식의 자기 정체성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나는 나를 대상화시켜서 느끼고 회상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으로서, 바꿔 말하면 의식의 자기 정체성을 지닌 채로 그런 경험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보는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바라보는 관점으로 물러서기는 하지만 보이는 대상으로 머물지는 않는 자아가 있으니, 이것이 의식의 자기 정체성이다. 비판철학자 칸트(Kant)는 이것을 ‘순수 자아’라고 했고, 현상학자 훗설(Husserl)은 ‘선형적 자아’라고 했다.

<다음 면 계속>

[문제2]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는 개방형 SNS가 폐쇄형 SNS에 비해 지니는 상대적 자유로움이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하십시오.(400±50자, 30점)

[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의 규범, 신뢰’로 정의되며, 개인 혹은 집단의 생산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사회자본은 연결적(bridging) 유형과 결속적(bonding)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결적 유형은 다른 사회적 배경과 인구사회학적 혹은 가치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결속적 유형은 유사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정서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배타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이 발달되어 왔기 때문이다.

[라] 소셜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을 뜻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SNS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개인의 취미, 감정, 콘텐츠, 관심사, 가치관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대표적인 SNS로는 한국의 ‘싸이월드’, 미국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 출범 당시 페이스북은 하버드대 학생들에게만 가입을 허가한, 제한되고 폐쇄된 성격의 가상 성벽으로 둘러쳐진 정원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에 문호를 개방했고, 후에는 대학 및 고등학교의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 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폐쇄적인 성격을 지녔다.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SNS 플랫폼인 ‘오픈소셜(OpenSocial)’은 과거의 페이스북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다. 오픈소셜과 같은 개방형 SNS들끼리는 서비스 시스템 연계를 통한 콘텐츠와 회원의 공유 및 이동이 폐쇄형 SNS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가령, ‘다음’ SNS 가입자가 원한다면 자신이 ‘파란’ 사이트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파란’ SNS 가입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 면 계속>

[문제3] 제시문 [마]는 오늘날 한국의 가족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제시문 [바]와 [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시오. (800±100자, 40점)

[마]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사회 성원의 생물학적 재생산과 일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핵심적 제도이다. 근대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확대가족 형태는 일반적으로 핵가족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우리 사회의 경우, 이 변화는 단지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으로 특징지어지는 농촌 인구의 대대적인 도시 이동과 연관된 현상일 뿐만 아니라, ‘돌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구호로 대표되는, 개발국가에 의한 강력한 가족 및 인구관리정책의 산물이기도 했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급속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데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결속력에 바탕을 둔 가족제도의 사회 통합적 힘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 이래 전승되어 온 유교적 미풍양속을 역사적 자산으로 물려받아 현대적으로 변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사회 이념에 부응하는 한국적 가족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안해 냈다. 매년 명절 때면 연례행사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일대 장관을 연출하는 귀성(歸省) 행렬은 전래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현대 한국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 독신, 미혼모, 혼전동거, 동성애 등 가족제도와 결혼문화의 ‘정상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사회 현상의 출현은 한국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해체의 징후로 읽힌다. 오늘날 한국 가족이 처한 위기 상황은 과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명성을 무색케 하는 도덕적 타락과 인륜(人倫)의 상실, 가치관의 모순과 혼란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적 현실을 반영한다.

[바]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사상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 가운데에는 사실상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 많다.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는 새로운 부부 관계나 성적인 관계가 아무리 충격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예전에 지구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미 시도된 바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망률이 높아서 재혼이 빈번했기 때문에 재혼 가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와 혼외자녀의 출생이 오늘날보다 더 흔하고 더 널리 받아들여졌던 사회와 시대도 적지 않았다. 현대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국 사회보다 이혼율이 더 높았던 지역과 시대도 있었으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비록 드물기는 했지만 동성간의 결혼이 용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낭만적인’ 일만은 결코 아니었다. 오랫동안 결혼은 정치적 거래이자 경제적 거래였다. 유력한 가문과의 사돈을 통한 동맹 맺기, 성별 분업, 재산 상속 등이 모두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결혼의 일차적 목표는 부부와 그 자녀들의 개인적인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다. 결혼은 한편으로는 평생의 반려자를 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기 위한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가문과 사돈을 맺어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거나 가족의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 면 계속>

[사] 근대적 개인의 출현과 더불어 인류의 결혼문화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이 더 이상 전통이나 관습, 가문과 친족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결혼이 오랜 공동체적 전통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으로 변화한 현대 사회에서 결혼제도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관계의 지속성이 더 이상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보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결혼했으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 결혼관계가 관계 ‘외적’인 관습과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결혼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자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사랑이 없다면 미련 없이 이혼해버린다거나 혹은 사랑하면 되었지 결혼이라는 형식이 왜 필요하냐는 식의 인간관계는 관계 ‘내적’인 속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혼관계의 지속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문화의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변화는 단지 결혼제도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거나 가족형태와 가족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최근 해외 몇몇 나라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바 있는 동성간 결혼의 합법화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해 온 가부장적 결혼 및 가족 제도가 자연스럽게 정당한 것이라는 오랜 통념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배적인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애적인 에로티시즘과 성 정체성에 대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에 대하여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이 더 이상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끝>

◆ 모범답안 (인문)

**【 논제 1 】**

(모범답안)

사람의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의식이다. 육체가 변하더라도 지속되는 의식이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다. <페이스 오프>에서 아처의 의식이 케스터의 육체 속으로 들어가고 케스터의 의식이 아처의 육체 속으로 들어갔으며 주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바뀐 상황에서도 그들은 의식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거울 속에 보이는 대상은 육체지만, 바라보는 주체는 의식이다. 사람이 어떤 인물로 바뀌려면 의식의 자기 정체성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영화 속의 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나를 규정하는 것은 의식이다. (301자)

(주요평가항목)

1. ‘자기 정체성’의 정의 제시 유무
2. 영화 속의 케스터와 아처의 예를 제시했는가의 유무
3. 의식(바라보는 주체)과 육체(바라보이는 대상)의 대조를 적절히 제시했는가의 여부
4. 자기 정체성의 변화 조건 제시 유무
5. 전체 글의 짜임새와 용어 사용의 적절성

**【 논제 2 】**

(모범답안)

폐쇄형 SNS는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보면 오프라인에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이런 이유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편리하며, 사회자본 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 형성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개방형 SNS는 다른 SNS와의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시문 [라]에서 주장하는 개방형 SNS의 자유로움 때문에 연결적 사회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개방형이 폐쇄형에 비해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16자)

(주요평가항목)

1. SNS 유형별(폐쇄형 vs. 개방형)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속성 비교 유무
2. 각각의 SNS 유형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사회자본 유형과의 연계(match) 유무
3. 2번의 연계가 옳은가?
4. 지시문 [라]에서 말하는 개방형 SNS의 상대적 자유로움이 연결적 사회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폐쇄형 SNS에 비해 장점을 지니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는가의 여부
5. 전체 글의 짜임새와 용어 사용의 적절성

### 【 논제 3 】

#### (모범답안)

인간은 흔히 자신이 경험해 온 익숙한 문화적 현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시하며, 낯선 문화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사회적 삶을 규정하는 제도와 문화는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것이다. 가족제도나 결혼규범에 있어서도 반드시 어떤 것이 정상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불변의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한국의 가족제도는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확대가족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대화를 거치면서 핵가족이 주종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했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 남녀간의 낭만적 사랑을 중심으로 한 결혼문화가 보편화된 것은 근대적 개인이 출현한 이후의 일로서,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이 개인의 정서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의 노동력을 증가시키거나 가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도 많았다.

가족과 결혼이 관습과 전통에 의해 보증되던 과거에 비해, 당사자들의 낭만적 사랑을 중심으로 결혼이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의 지속성은 오히려 더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은 이러한 결혼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성적 욕망이 생물학적 재생산이라는 규범적 의무로부터 해방된 현대사회에서 성문화가 다양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독신, 미혼모, 혼전동거, 동성애 등의 현상에 대해 ‘가족의 위기’라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병리 현상으로 선불리 단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가족관계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이분법적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844자)

#### (주요평가항목)

1. 제시문 [마]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제도와 결혼문화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가르는 이분법적 편견에 대해 비판 여부
2. 제시문 [바]에서 소개된 가족제도와 결혼문화의 역사적 다양성에 대해 언급 여부
3. 제시문 [사]에서 논의된 낭만적 사랑의 출현과 결혼관계의 불안정성의 증가 간의 상관성에 대해 언급 여부
4. 결혼관계의 불안정화, 성문화의 다양화, 가족형태의 변화간의 상관성에 대해 언급 여부
5. 전체 글의 짜임새와 용어 사용의 적절성.